

“무능한 야당에 더 이상 못 참겠다”... 호남 투표율 전국 최고

광주 61.6·전남 63.7%

변화 열망이 투표장으로

수도권은 교차투표 양상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심판 등 기성 정치권에 대한 변화 열망이 광주·전남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수도권 유권자들은 ‘교차투표’를 통해 정당투표에는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의 전남 투표율이 63.7%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주 투표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특히 광주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오후 6시 잠정 집계한 투표율은 광주 61.6%, 전남 63.7%로 전국 평균 투표율 57.3%보다 높았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광주 지역별 투표율은 남구가 62.7%로

가장 높았고, 동구·서구가 각각 62.6%, 북구 61.2%, 광산구 60.0% 등을 기록했다. 전남은 목포(56.0%)와 여수(59.8%)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60%이상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고흥이 69.6%로 가장 높았고, 완도 69%였다.

광주 투표율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16대 광주 54%(전국 57.2%), 17대 광주 60.2%(전국 60.6%), 18대 광주 42.4%(전국 46.1%), 19대 광주 52.7%(전국 54.2%)였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총선 투표율이 역대 총선 투표율보다 크게 높아진 것은 일당 독주체제에서 벗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권 텃밭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선거열기가 고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호남정치 복원과 호남주도 정계개편, 친노패권주의 청산 등 변화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열망이 투표율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 정당투표에서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교차 투표’ 경향이 두드러졌

다는 게 특징이다.

여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여권에 맞서 당선이 가능한 수도권 더민주 후보에 지역구 표는 몰아주고, 정당표는 국민의당에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의당 정당투표율은 더민주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1시30분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개표율이 49.26%인 가운데 새누리 36.17%, 더민주 24.47%, 국민의당 25.35%의 득표율로, 국민의당이 더민주를 앞서고 있다.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민주는 비례대표로 11~14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고, 국민의당은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당초 비례대표로 21석까지 쟁길 것으로 봤던 새누리당은 예상치가 15~19석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교차투표가 가능했던 이유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비민주심을 크게 잃은 데다, 제1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해석된다. /최권일기자 cki@



북적이는 투표장 4·13총선이 열린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용암4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줄을 서 투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안철수 ‘부활’ 김무성 ‘휘청’

■ 희비 엇갈린 대선 잠룡들

오세훈, 낙선에 큰 타격

유승민, 여권 변화의 핵으로

4·13 총선에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여야 대선 예비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여당 참패, 야당 승리’란 총선 결과는 여당 후보에겐 치명상을 안긴 반면, 야당 후보에겐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새누리당의 경우 잠룡들의 대권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장 유력한 여당 대권후보였던 김무성 대표는 원내 과반 달성 실패에 따른 책임론에 시달리면서 대권후보의 위치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당 대표로서 친박(친박근혜)계의 공천 전횡을 막지 못해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시달리면서 당내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밖으로는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리더십 부족이라는 평가를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보수의 1번지 대구 수성구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대선행보를 시작도 하기 전에 치명상을 입고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대구 동에서 무소속으로 승리

한 유승민 의원은 일단 여권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대권주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의 북당 공언에도 불구하고, 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다. 이때는 유 의원이 중도 통합을 주장하면서 여권발 정계개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대권구도가 복잡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일단 대구 수성구에서 승리한 더민주 김부겸 전 의원이 주목받는 대권주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동지인 홍인택(무소속) 후보와 함께 야권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소선거구제 이후 처음으로 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됨으로써 지역구도 타파의 주인공이 됨은 물론 야당의 영남권 득표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동안 야권에서 가장 앞서가던 대권후보였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더민주의 수도권 승리에도 불구하고, 텃밭인 호남에서 참패해 대권행보를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호남 압승 등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나 수도권 당선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전국을 아우르는 대권주자로서 한계를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로에서 여당의 유력 주자를 물리친 더민주 정세균 의원은 호남 출신임을 앞세워 대권 도전을 호시탐탐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조훈현 국수 비례 당선권... 박광온·기동민 입성 눈앞

■ 광주·전남 출신 타지역 성적표

4·13 총선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재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도권 등 타지역에 출마,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우선, 새누리당 소속으로는 여당의 수도권 참패로 과거 총선보다 이 지역 출신 후보들의 성적도 저조한 가운데 같은 보성 출신인 이종구(서울 강남구)·정양석

(서울 강북구)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들어갔다.

반면, 이상일(함평, 경기 용인시정), 심재철(광주, 경기 안양동안울), 김동성(순천, 서울 중구·성동구), 정두언(광주, 서울 서대문구) 후보는 개표 마지막까지 야당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목포 출신인 ‘바독황제’ 조훈현 후보가 당선권에 포함돼 여의도

에 입성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박광온(해남, 경기 수원시정), 박홍근(고흥, 서울 중랑구), 기동민(장성, 성북구), 송영길(고흥, 인천 계양구), 김태년(순천, 경기 성남수정구), 전해철(목포, 경기 안산상록읍), 이학영(전남대, 경기 군포시) 후보 등이 당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최윤열 전 서강대 교수가

천정배 6선 최다선... 광주 북구갑 김경진, 72% 최다 득표

■ 광주·전남 당선자 분석

박지원 등 중진 4명 4선

울사 출신 7명 국회 입성

송기석 등 신인 4명 첫 배지

제20대 총선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4선 의원 4명을 포함해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6명이다. 당선인 중 범종인 출신도 7명이나 됐다. 광주·전남지역 최다득표는 광주 북구갑 김경진 당선인이 기록했다.

◇중진의원 6명 배출=이번 총선 결과 광주·전남지역 최다선 의원은 천정배(광주 서구) 의원이다. 제15대 총선에 경기도 안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4선을 했다. 이어 19대 총선에서는 서

울 송파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하지만, 지난해 4·29 광주 서구를 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해 6선 의원이 되면서 광주·전남에서 최다선 의원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박주선(광주 동남구), 김동철(광주 광산구), 박지원(전남 목포), 주승용(여수) 의원은 모두 4선 의원이 됐다. 박주선 의원은 제16대 총선에서 보성·화순 선거구에서 당선된 뒤 18대 총선에서 광주 동구로 자리를 옮겨 내리 3선을 하면서 4선 의원이 됐다. 김동철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다. 한 선거구에서 내리 4선을 한 의원은

고(故) 신기하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전남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4선 의원이 됐다. 박 의원은 지난 14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한 뒤 18·19대 총선에 이어 목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주승용 의원은 제17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한 선거구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고, 장병완(광주 동남구) 의원은 지난 2010년 7·28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19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승리하면서 3선 의원이 되면서 중진 의원 대열에 올랐다. 권은희(광주 광산)·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재선 의원이 됐다.

◇광주·전남 당선인 7명이 범종인=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18명 중 7명이 범종인 출신이다. 특히 광주는 8명 중 5명이 범종인이다. 박주선·천정배·권은희 현역 의원을 비롯, 김경진(광주 북구갑)·송기석(광주 서구갑) 당선인이 새로 합류했다. 김경진 당선인은 부장검사 출

4번에 배치돼 당선이 확정됐다.

국민의당 소속으로는 영암 출신인 문병호 후보(인천 부평갑)가 새누리당 후보와 개표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12번 이동섭 서울 시 태권도연합회 회장과 13번 최도자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각각 고흥(고흥, 인천 계양구), 김태년(순천, 경기 성남수정구), 전해철(목포, 경기 안산상록읍), 이학영(전남대, 경기 군포시) 후보 등이 당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최윤열 전 서강대 교수가

정당의 비례 2번을 받은 김종대 전국방개혁당장과 4번 윤소하 전남도당위원장 등 광주·전남 출신으로 각각 당선권에 오른 상태. /박지경기자 jkpark@

신 변호사고, 송기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퇴임했다.

전남에서는 판사 출신인 송금주(나주·화순) 당선인과 검사출신 이용주(여수갑) 당선인 2명이다.

한편, 이번 4·13 총선에서 20여명의 범종인 출신들이 광주·전남지역 선거구에 출마표를 던졌다.

◇광주·전남 최다득표는 누구? 이번 총선결과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 국민 의당 김경진 후보가 최다득표의 영예를 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1시30분 현재 광주 북구갑 개표율이 72.01%를 기록한 가운데 김 후보가 72.16%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는 22.19%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가 뒤늦게 정 후보를 전략공천하면서 2개월 뒤에 선거운동을 시작해 득표율 차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권일기자 cki@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지오옥션 경매 컨설팅

20년경력의 부동산 컨설턴트 성실한 상담

- ★ 공장 나주시 오량동 단층 및 2층공장, 대지5,735㎡ 건물3,965㎡ 동수오량농공단지내 ▶ 감평가 34억6천7백, 최저가 15억5천5백 (감평가의45%)
- ★ 공장 화순군 동면 단층 및 2층 미곡공장, 대지6,844㎡ 건물1485.8㎡ 연동마을인근 ▶ 감평가 13억2천만, 최저가 4억7천3백 (감평가의36%)
- ★ 공장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전통식품공장, 대지7940㎡ 건물3502㎡ 단층 및 3층 ▶ 감평가 24억9천4백, 최저가 4억2천
- ★ 공장 광산구 안창동 하남산단내 대지5,940㎡ 건물5872㎡ 단층 및 2층 ▶ 감평가 57억6천8백, 최저가 57억6천8백
- ★ 나주시 경현동 지하1층~지상3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현리유원지부근 ▶ 감평가 30억6천5백, 최저가 8억7천9백 (감평가의29%)

※ 전지역 병원, 사우나 매매, 매입 상담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조여사 010-6211-4585



G.O. Auction

채용 공고

- * 경매투자에 관심있는분
- * 부동산 배우면서 일할분
- * 공인중개사
- * 열정과 소신이 있는분
- *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분
- * 자격증 소지 무관

지금 도전하세요!!

T. 062-714-2251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수익성 부동산 다량 보유

- ★ 광산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기업은행뒤 대지 479㎡, ▶ 매매 5억8천만 (조정가)
- ★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 매매 2억2천만 (조정가) 현 주처장
- ★ 근린시설 남구 주월동 지하1층, 지상8층 대지 3752㎡ 남구청 부근대로변 ▶ 감평가 35억4천4백, 최저가 35억4천4백
- ★ 근린시설 동구 동명동 8층 건물 대지 700㎡ 건물 2005㎡ 왕복 4차선전 ▶ 감평가 19억6천, 최저가 19억6천
- ★ 의료시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입구, 대지 11,546㎡ 건물 5,733,24㎡ 대로변 ▶ 감평가 48억8천6백, 최저가 48억8천6백

※ 전국 물건 매입 ※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공태풍 010-3820-8151



T. 062-714-2251

NPL채권 전국 물건 상담
이주원 국장 010-7171-7610

권리분석, 수익성 상담
강천구 이사 010-6838-6008